

이광수 『有情』의 신문연재본과 이본(異本)들*

— 연재 누락분 복원 및 서지적 오류의 정정

정 주 아**

[초 록]

이 글에서는 1933년 <조선일보>에 연재된 춘원 이광수의 장편소설 『유정』의 서지적인 오류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선 그간 잘못 알려져 있던 연재 기간과 연재 횟수를 바로 잡았다. 이어 신문연재본이 단

* 이 논문은 태학사에서 펴낼 새로운 춘원 전집과 관련하여, 필자가 감수를 담당한 작품인 『유정』의 신문연재 원본 확인 작업 중 나타난 문제를 정리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논의된 연재 누락분을 비롯하여 단행본 인쇄 과정에서 변형된 내용과 표현들에 대한 복원 및 수정 작업은 태학사판 『유정』에, 신문연재 원본을 기준으로 하여 모두 반영되었다.

『유정』의 <조선일보> 원문 및 해방 전 단행본 자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디지털 조선일보 PDF 콘텐츠아카이브팀 윤원진 부국장님, 화봉문고(華峯文庫) 여승구 사장님과 양선미 팀장님,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임태웅 선생님,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최현민 선생에게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주제어: 이광수, 유정, 조선일보 연재소설, 삼중당 전집, 근대 서지, 이본(異本)
Lee Kwang-soo, *Yujeong*, The Serialized Novel, Samjoongdang, Bibliographic Study, The Different Version

행본으로 발간되면서 달라진 단어나 문장들의 사례를 살폈다. 그중에는 작품 이해에 있어 기초적인 정보가 되는 시공간적 배경에 대한 사안도 있고, 인쇄상에서 생겨난 착오가 어떻게 전혀 다른 표현으로 전이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 논문은 <조선일보> 연재본과 1962년 해방 후에 발간된 삼중당 전집본을 비교하는 작업 중 발견한 두 판본의 내용상 차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다. 신문연재 제43회분(1933년 11월 25일자 연재)의 내용이 단행본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대체된 맥락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일역본을 포함하여 해방 전에 발간된 『유정』의 여러 판본을 모두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단행본 인쇄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신문연재본과 다른 내용의 제43회가 단행본에 대체 수록됨으로써, 『유정』에 여러 이본이 생겨나게 되는 과정을 살폈다. 결과적으로 보아, 소설의 세부 내용이 신문 연재본, 조선어 단행본, 일본어 단행본, 삼중당 전집본의 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춘원의 『유정』은 신문연재 원본과 세 가지 형태의 이본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1. 서론: 『유정』의 신문연재본과 단행본 간의 차이

이 글은 1933년 발표된 춘원 이광수의 장편소설 『유정』의 <조선일보> 연재본과 해방 이후 발간된 삼중당 단행본의 대조 검토 작업 중 발견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중에는 작품의 연재 기간처럼 작품의 기본 정보에 속하지만 그동안 잘못 기입되어 온 사실도 있고, 작품의 사건 전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식자(植字) 과정에서 문장이나 단어가 훼손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신문연재본과 단행본의 대조 작업에 대한 정리가 이렇듯 본격적인 논문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대개의 춘원 연구자들이 일차 텍스트로 선택하는 삼중당판본과 신문연재본 사이에 연재한 회 분량의 원고 내용이 통째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관련

사항들을 정리해두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유정』은 춘원 스스로 “만일 내 작품 중에 후세에 가히 끼쳐질 만한 것이 있다면 이 『有情』과 『嘉實』”이라고¹⁾ 언급한 바 있는 자선 대표작이기도 하고,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도 『무정』(1917)으로 대변되는 대중지향적 계몽성이 관념적으로 내면화되는 변화를 보여준다고 평가되어 온 주요 작품이기도 하다. 이에 단일 작품론도 종종 발표되고 있으나, 작품 서지를 엄밀하게 재검토한 논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이본(異本)의 발생 및 그 맥락에 대해 정리하고, 더불어 그 정리 과정에서 확인된 해방 전 단행본들의 소재(所在) 및 인쇄 작업의 난맥상을 확인하여 서지적 문제점을 지적해 두는 것도 관련 연구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리라 본다.

우선 다음 장에서는 대조작업 중 발견된 간단한 오류들을 정정하고, 3장 및 4장에서는 누락된 신문연재본과 관련한 주변 정황을 조사하고 연재본의 본래 내용을 확인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단행본 발간의 정황 및 온전한 서지 사항을 참고했을 때 『유정』 분석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할 사안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보기로 한다.

2. 연재 일자 정정 및 인쇄상 오식(誤植)의 몇 가지 사례

소설 『유정』의 <조선일보> 연재 기간은 1933년 9월 27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이다. 그간 이 소설의 첫 연재는 10월 1일에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해당 일에는 이미 제4회 연재본이 수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33년 9월 23일에 소설 유정의 게재 예정을 알리는 광고가 실리고, 이후 27일에 첫 회가 연재되었다. 9월 27일 발간된 신문의 제1면에는 “장편소설 유정 금일부터 4면에 연재”라는 안내가 나와 있으며, 실제

1) 이광수(1963), 「『無情』等 全作品을 講하다」(1937), 『이광수전집』16, 삼중당, pp. 304-305.

로 4면 하단에 2단 조판으로 실렸다. 삽화는 당시에는 화단(畵壇)의 신인이었으나 훗날 삽화가이자 만화가로 유명해진 응초(熊超) 김규택(金奎澤)이 맡았다.

『유정』은 총 76회분이 연재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신문 연재소설의 회차(回次) 표기는 종종 착오를 일으키곤 하는데, 『유정』 또한 12월 3일 제50회가 연재된 이후 12월 4일 제51회 연재분을 52회로 잘못 표기한 뒤, 이 착오가 바로 잡혀지지 않은 채 결국 연재 종료 지점에 총 76회로 마무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는 총 75회분이 연재된 셈이다.²⁾ 이러한 착오 때문에, 신문 연재시 표기된 회차에 따라 장(章)을 나누어 편집했던 해방 이전 『유정』의 조선어 단행본들은 48회 연재분을 둘로 나누어 단행본의 이야기가 신문연재본과 동일한 회차로 진행되고 마무리되도록 조정했다. 『유정』의 단행본 판본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연재 일자 및 횟수에 대한 검토에 이어, 다음은 신문연재본과 삼중당 판본의 대조 작업 중에 발견된 대표적인 오식(誤植)의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사소한 오식들은 상당히 많지만, 그중 작품 해석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례만을 몇 가지 추렸다.

	조선일보 연재본(1933)	삼중당 단행본(1962)
①	바로 이러한 썰다. 작년 이맘때 중추 의 바람이 아침 저녁이면 쌀쌀할 썰에 나는 최석의 편지를 바닷고, 그 후 한 달쯤 뒤에 최석을 짜라서 써냈던 남정임에게로부터 또 한 편지를 바닷다. (제1회, 9.27.)	바로 이러한 때다. 작년 이맘때 초추 의 바람이 아침 저녁이면 쌀쌀한 때에 나는 최석의 편지를 받았고, 그 후 한 달쯤 뒤에 최석을 따라서 떠났던 남정임에게로부터 또 한 편지를 받았다. (p. 8)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 글에서 발췌 및 인용하는 『유정』 신문 연재본 및 단행본의 회차는 연재 당시의 착오 여부에 상관없이 각각의 신문 및 단행본에 기입된 날짜 및 회차 표기를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표기법은 인용 텍스트의 원래 표기를 따랐다.

	조선일보 연재본(1933)	삼중당 단행본(1962)
②	간호부는 나보다 한 걸음 앞서 들어가서 정임의 침대 곁에 서며, 「난상. 오쿠니까라 멘카이닌(남정임 씨. 본국서 손님 왔소).」 하였소. 정임은 감고있던 눈을 번쩍 씻소. 그 눈은 내 눈과 마주쳤소. (제14회, 10.12.)	간호부는 나보다 한 걸음 앞서 들어가서 정임의 침대 곁에 서며, “난상 오쿠니까라 멘카이닌(남 정임 씨 본국서 손님 왔소).” 하였소. 정임은 감고 있던 눈을 슬쩍 뻗소. 그 눈은 내 눈과 마주쳤소. (p. 29)
③	나는 다시 조선의 하늘을 통과하기가 싫어서 북강 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문사에 와서 대련으로 가는 배를 탔소. (제38회, 11.14.)	나는 다시 조선의 하늘을 통과하기가 싫어서 북강 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문사에 와서 대련으로 가는 배를 탔소. (p. 67)
④	동양의 국제적 괴물인 하르빈시기도 까마케 안계 에서 스러져버리고 말았소. (제41회, 11.17.)	동양의 국제적 괴물인 하르빈 시기도 까마케 안계 에서 스러져 버리고 말았소. (p. 72)
⑤	「우리 손임이 택 에서 잤서요?» (제60회, 12.13.)	“우리 손임이 택 에 잤어요?” (p. 103)
⑥	「나는 이 근방에 사는 사람이닛가 여괴 오는것도 잇슬일이지마는 당신이야 말로 이 아닌 밤중예, 이 무인지경에 엇더케 오섯단말이오? 」 하고 그도 내가 무슨 악의를 가진 흥한이 아닌줄을알고 손에 빼어들엇던 룡혈포를 옆에 찬 룡혈포 집에너코 손을 내밀어서 내게 악수를 구하오. 나는 반갑게 그의 손을잡았소. 그러나 나는 죽을자리와 시기를 잠깐이라도 느낀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였소. (제44회, 11.26.)	“나는 이 근방에 사는 사람이니까 여기 오는 것도 있을 일이지마는 당신이야 말로 이 아닌 밤중에, 이 무인 지경에?” 하고 육혈포를 집어넣고 , 손을 내밀어서 내게 악수를 구하오. 나는 반갑게 그의 손을 잡았소. 그러나 나는 ‘죽을 지경에 어떻게 오섯단 말이요?’ 하고, 그도 내가 무슨 악의를 가진 흥한이 아닌 줄을 알고 손에 빼어들엇던 육혈포로 시기를 잠깐이라도 노린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였던 것이오. (p. 76)

①은 작중 화자인 ‘나’(N형)가 최석의 편지를 받은 시기에 대한 기술이다. 당초 연재본에는 ‘중추’(中秋)였으나, 단행본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초추’(初秋)로 변경되었다. 주지하듯 『유정』은 액자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최석의 편지글에 의해 최석과 남정임의 사연을 담고 있는 과거

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편지의 사연 속에서 최석은 조선을 떠나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반에 이른다. 이에 조선과 시베리아를 오가며 펼쳐지는 『유정』의 서사는 눈 쌓인 평원, 추위, 백색 등의 감각적 이미지가 풍부하다. 가을이 무르익어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조선의 날씨는, 오해와 모욕을 뒤로 하고 조선을 떠나버린 최석이 정착한 시베리아의 매서운 추위와 감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울러 이렇듯 지독한 추위는 외부로부터 고립된 채 욕망을 통제하고 자신을 확대하며 결백을 증명해 나가는 최석의 도덕적 엄격성과도 공명한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중추’라는 시간적 배경의 의미가 가볍지 않은 까닭이다.

②는 남정임이 병들어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최석이 급히 동경의 대학병원으로 찾아가 병실에 누운 정임과 해후하는 장면이다. 간호부로부터 최석이 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정임이 눈을 뜨는 장면에 대한 서술로서, 연재본의 ‘번쩍’이 단행본에서는 ‘슬쩍’으로 바뀌었다. 정임의 병은 최석을 향해 이루지 못할 연정을 품은 끝에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한다면, 조선에서 온 손님의 소식에 대한 정임의 반응으로는 ‘슬쩍’보다는 ‘번쩍’이 합당해 보인다.

③은 조선을 떠나기로 결심한 최석이 마지막으로 동경에 들러 정임을 만난 뒤 시베리아를 향해 출발한 뒤의 여정이다. 그는 복강(福岡), 즉 후쿠오카까지 비행기를 탄 뒤, 후쿠오카 동북쪽으로 면한 문사(門司), 즉 모지항(港)으로 가서 대련(大連)행 배를 탔다. 최석은 조선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³⁾ “다시 조선의 하늘을 통과하기 싫어

3) 1926년 9월에 일본 서천(西天)항공은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의 오사카-만주의 대련을 연결하는 항공로를 개설했다. 일본 최초의 국제 정기항공 노선이었다. 1929년 4월에는 일본항공운송이 도쿄-후쿠오카-대구-서울-평양-신의주-대련을 연결하는 한국 최초의 민간항공노선을 개설하여 우편 및 화물을 실어 날랐다. 같은 해 9월부터는 도쿄-후쿠오카-울산-서울-평양-대련 노선으로 매일 1회 왕복하며 여객을 수송하였다(김진원(1992), 「항공발달사」, 『한국항공우주학회지』20(3), p. 131). 도쿄에서 비행기를 탄 최석은 비행기로 서울을 거쳐 대련까지 갈 수 있었던 셈이다.

서”라고 명백하게 밝혀두었다. ‘북강’은 ‘북강’(후쿠오카)의 오식이다. 최석이 선택한 여행의 경로는 그가 조선을 향해 품게 된 환멸의 깊이를 보여준다. 정확한 지명을 토대로 해야만 이와 같은 동선의 재구가 가능해 짐은 물론이다.

④는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인 안계(眼界)가 단행본 판본에서 ‘안개’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다른 사례에 비해 단순 착오임이 분명해 보인다.

⑤는 남편과 함께 시베리아로 떠난 줄로만 알았던 남정임이 단신으로 동경에서 귀국한 사실을 알고, 조선에 남겨진 최석의 부인이 한편으로는 정임을 환영하면서도 그녀에 대한 의심을 여전히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다. 문면으로는 전날 귀가하지 않은 딸 순임의 행적을 ‘나’에게 묻고 있으나, 실상은 정임이 딸과 함께 있어야만 비로소 마음을 놓는 부인의 의심 많은 성벽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쓰인 문장이다. 이하에서는 순임이 ‘나’의 집에서 정임과 자지 않았다는 말에 부인의 습관적인 의심증이 다시 도지는 장면이 이어진다. ‘- 잤어요?’가 아닌 ‘- 잤어요?’로는 이러한 부인의 의심증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 작중에서 정임과 순임은 최석을 찾기 위해 전날 밤 함께 시베리아로 떠난 상황이다.

이상 열거한 사례에는 단순한 착오임이 분명해 보이는 것도 있으나, ‘중추’에서 ‘초추’로, ‘번쩍’에서 ‘슬쩍’으로의 전이처럼 너무나도 의미의 변화가 뚜렷해서 혹시 단행본의 발간 과정에서 작가가 퇴고를 거쳐 수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⑥은, 신문 연재본에서 의미가 분명했던 문장이 도리어 단행본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잘못된 문장이 되어 버린 경우로, 신문연재본과 단행본의 차이가 작가의 퇴고보다도 인쇄 과정의 오류와 변형에서 생겨난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사례이다. 이 문장은 “어떻게 오셨단 말이요? 하고 그도 내가 무슨 악의를 가진 흥한이 아닌 줄을 알고”라는 구절이 놓인 위치가 바뀌면서 전체 문장이 비문이 되어버렸다. 이 문장의 혼란상은 삼중당 판본에 앞서 해방 이전에 발간되었던 단행본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나는 이 근방에 사는 사람이니까 여기 오는것도 있을일이지만은 당신이야말로 이 아닌 밤중에 이 무인(*)포를 옆에 찬 룡혈로 집어넣고, 손을 내밀어서 내게 악수를 구하오.

나는 반갑게 그의 손을 잡았소. 「그러나 나는」 죽을 지경에 어떻게 오셨단 말이오」하고 그도 내가 무슨 악의를 가진 흉한이 아닌줄을 알고 손에 빼어들었던 룡혈자리와 시기를 잠깐이라도 노친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였소.4)

위의 인용은 해방 후 최초로 나온 단행본에서 동일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본래 별표(*) 지점에 들어가야 할 밑줄 친 부분이 뒤로 밀려 기호와 문장이 모두 잘못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후에 나온 삼중당 판본은 이 단행본을 기준으로 삼아 문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문맥을 다듬었다. 다듬어진 의미가 어색하더라도 최대한 기존 단행본의 문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작업을 한 것이다. 이는 비단 ⑥의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①~⑤까지 제시한 삼중당 판본의 오류들은 모두 해방 전 단행본의 오류가 그대로 이어진 결과이다. ‘육혈포 집에 넣고’-‘육혈로 집어넣고’-‘육혈포를 집어넣고’, ‘느친(느낀) 것을’-‘노친 것을’-‘노린 것을’ 등의 변천을 참고로 한다면, 단행본에 나타난 표현상의 변모는 작가의 퇴고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조판 및 인쇄 과정에서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처럼 단행본 편찬 과정에서 생겨난 오기(誤記)나 변형은, 인쇄소를 바꾸어 식자와 조판을 거치면서 표현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본문의 정확성과 생동감이 훼손되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4) 이광수(1935), 『유정』, 청도사, p. 163.

청도사 단행본에 대한 설명은 본문의 4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3. ‘43회 연재분’ 이본 간의 내용 비교

앞서 정리한 연재 기간과 인쇄상 오식의 문제와는 별도로, 소설 『유정』의 신문연재본과 삼중당본을 함께 검토하는 작업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연재 43회분’(1933.11.25.)의 내용이 삼중당본 해당 부분의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었다. 제43회 연재분과 앞뒤로 연결되는 제42회 및 제44회 연재분의 내용은 양 판본이 동일하지만, 정확히 제43회에 해당되는 내용만 서로 차이를 보인다. 앞뒤 이야기의 연결 부분은 양 판본 모두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조선일보> ‘43회 연재분’의 내용이, 신문연재본과 삼중당 판본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세간의 오해를 받아 상심한 최석은 동경에서 마지막으로 남정임을 만나고, 시베리아를 향해 떠난다. 대련과 장춘, 하얼빈을 거쳐 바이칼호를 향해 나아가던 최석은 흥안령 인근 F역에 도착한 직후 북만주 광야의 광활한 풍경에 매혹된다. 북만주 광야의 석양과 그 빛을 받아 빛나는 호수에 대한 찬사에 이어, 『유정』의 유명한 에피소드 중 하나인 ‘두 별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제43회 연재분은, ‘두 별 무덤’의 주인인 R부부를 만나기 직전까지의 상황, 즉 석양이 지고 어둠이 드리울 무렵까지 호숫가 주변의 광야를 헤매며 정임의 환영을 좇던 최석이 정임에 대한 그리움까지도 죄악이 되는 것인지를 신에게 물으며 한탄하는 부분이다.⁵⁾

이 글의 본문에서는 전문인용은 피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살피기로 하자. 먼저 아래의 인용은, 연구자들에게 익숙한 삼중당 단행본의 해당 부분을 옮긴 것이다. 신문연재본과 내용이 달라졌음에도 앞뒤 연결부가 얼마나 매끄럽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신문연재본으로 친다면 제42회 및 제44회 연결부에 해당하는 앞·뒷부분 일부를

5) 삼중당 전집본 74-76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조선일보> 제43회 연재분과 그에 해당하는 삼중당 단행본의 전문은 부록으로 따로 첨부하였다.

붙여서 인용해본다.

<아아 저 작은 별. 저것마저 넘어가면 나는 어찌하나?>

인제는 어둡소. 광야의 황혼은 명색뿐이요, 순식간이요. 해지자 신비하다고 할 만한 극히 짧은 동안의 아름다운 황혼을 조금 보이고는 곧 칠과 같은 암흑이요. 호수의 물만이 어디서 온 빛을 받았는지 뿌영계, 나만이 유일한 존재다, 나만이 유일한 빛이다 하는 듯이 인제는 수은빛이 아니라 남빛을 발하고 있을 뿐이요. (삼중당본 p. 74; 연재본 42회 끝부분)

나는 그중 빛을 많이 받은, 그중 환해 보이는 호수면을 찾아 두리번거리며, 그러나 빠른 걸음으로 헤매었소. 그러나 내가 좀더 맑은 호수면을 찾는 동안에 이 광야의 어둠은 더욱더욱 짙어지오.

나는 어떤 조그마한 호수가에 펼씩 앉았소. 내 앞에는 짙은 남빛의 수면에 조그마한 거울만한 밝은 데가 있소. 마치 내 눈에서 무슨 빛이 나와서, 아마 정임을 그리워하는 빛이 나와서 그 수면에 반사하는 듯이. 나는 허겁지겁 그 짙은 수면을 들여다보았소. 혹시나 정임의 모양이 거기 나타나지나 아니할까 하고. 세상에는 그러한 기적도 있지 아니한가 하고.

물에는 정임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소. 이따금 정임의 눈도 어른거리고 코도 번뜻거리고 입도 번뜻거리는 것 같소. 그러나 수면은 점점 어두워 가서 그 환영조차 더욱 희미해지오.

(…중략…)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혼자서 정임을 생각만 하는 것이야 무슨 죄 될 것이 있을까요. 내가 정임을 만나나 떠나서 이렇게 헛그림자나 그리며 그리워하는 것이야 무슨 죄가 될까요. 설사 죄가 되기로 서니 난들 이것까지야 어찌하오. 내가 내 혼을 죽여 버리기 전에야 내 힘으로 어찌하오. 설사 죄가 되어서 내가 지옥의 꺼지지 않는 유향불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기로서니 그것을 어찌하오. 형, 이것 이것도 말아야 옳은가요. 정임의 헛그림자까지도 끊어 버려야

옳은가요.

이때요. 바로 이때요. 내 앞 수십보나 될까(감감한 밤이라 먼지 가까운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마는) 하는 곳에 난데없는 등불 하나가 나시오. 나는 깜짝 놀라서 우뚝 섰소. 이 무인지경, 이 밤중에 갑자기 보이는 등불-그것은 마치 이 세상 같지 아니하였소.

(삼중당본 pp. 74-76; 대체 서술 부분)

저 등불이 어떤 등불일까, 그 등불이 몇 걸음 가까이 오니, 그 등불 뒤에 사람의 다리가 보이오.

「누구요?」

하는 것은 귀에 익은 조선말이요. 어떻게 이 몽고의 광야에서 조선말을 들을까 하고 나는 등불을 처음 볼 때보다 더욱 놀래었소.

「나는 지나가던 사람이요.」

하고 나도 등불을 향하여 마주 걸어갔소. (삼중당본 p. 76; 연재본 제44회 첫 부분)

춘원 연구자들에게 익숙한 삼중당본에서 최석은, 작은 호숫가에 이르러 수면에 비치는 희미한 빛을 보며 정임의 모습을 기억해내려 애쓴다. 그는 비록 환영이나마 정임의 모습을 그려내고 그것을 안아보려 한다. 그리고 정임을 향한 자신의 이 같은 열정도 과연 죄가 될 것인가를 ‘형’에게 물으며 한탄한다. 이 장면의 핵심 사건은 ‘정임의 환영을 그려내고 그런 생각이 죄가 되는지 묻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작은 호숫가에서 정임의 환영을 좇는다는 대략적인 상황은 같으나, 신문연재본은 삼중당본보다 내용이 길고 풍부하다.⁶⁾ 연재 43회분은, 대부분의 회차가 2단 조판인 데 비하여 유독 3단으로 조판이 되어 있다. 분량이 다른 회차보다 많았던 까닭이다. 춘원은 『유정』에 대해 ‘시베리아의

6) 200자 원고 분량으로 본다면 삼중당 단행본은 약 8.1장, 신문연재본은 약 11.3장이자. 연재본이 약 3장 가량 많다.

자연묘사에 상당히 힘을 들였다'고 회고한 바 있는데,⁷⁾ 시베리아로 향하는 입구라 할 흥안령 일대 평원의 풍경을 그려낸 43회분도 그중의 한 사례가 되는 셈이다. 두 판본을 비교했을 때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 존재의 사소함을 우주의 광대함에 빗대어 설명하고 그러면서도 미물에게 깃든 생명의 위대함에 감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최석의 사변이 전부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제43회 연재분의 전문은 논문의 <부록>에 별도로 첨부하기로 하고, 본문에서는 처음과 끝 문단을 포함하여 삼중당 판본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인용해보기로 한다. 제42회 끝 부분 및 제44회 첫 부분의 내용은 앞서 살핀 단행본 판본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번에는 인용하지 않는다.

① 나는 펄석 주저안것소. 큰 별을 알뜰히도 짜라가던 적은 별조차 지평선으로 넘어가고 마니 세상이 원통 캄캄해지는것 가탓소. 사막의 밤은 캄캄했지만 그 「두 별」일래 나는 환한 빛속을 짓는것 가탓거든. 그러나 인제는 나를 끌어주는 별조차 업서것소.

세상에도 빛을 일코 맘에도 빛출 일흔 나. 이 나는 쌍바닥에 펄석 주저안즌것이오.

② 이러한 어두움 속에 생명이라고는 오직 나 하나뿐. 풀도 마르고 버레도 죽었소. 쌍속에는 가날핀 풀썩리와 벌러지의 용[번데기(蛹)-인용자 주]들이 닥쳐올 치위를 생각하고 썰고 잇겟지요. 그러다가 얼어죽고 남은 썩리와 용에서 풀과 벌러지가 나와서 오날의 사막과 빛과 소리의 잔치를 차리겟지요. 그러나 지금의 이 천지는 완전한 어두움과 죽음뿐이오. 그 속에 나라는 생명이 오직하나!

7) “더구나 <有情> 속에 「西伯利亞의 自然描寫를 한」에 이르러서는 나는 相當히 힘을 들였소이다.”

(이광수(1963), 『『無情』等 全作品을 語하다』(1937), p. 305.)

③ 아아 나는 엇더케나 적은 존재인가. 나는 이 쌍에부튼 조고마한 한 벌어지. 나의존재는 이 큰 우주에서 불세에 도모지 감각되지 않는 미물. 틱슬한 알갱이보다도 적고 가엽고 뜻 업는 미물. 그러나 형! 이것이 무엇시오? 내속에 요 반짝반짝하는것이 무엇시오? 저 한 업는 공중과 한 업는 세월과 그리고 슬픔과 깃뿔과 사랑과 이런 모 든것을 의식하는 요것이 무엇시오? 요것이 생명의 신비요? 형은 철학자요, 문사닛가 요것이 무엇이란것을아실것도 갓소. 마는 날가티 칠판과 분필로만 일생을 보낸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을 할 기회가 업섯소.

나라고하는 미물의 속에 이러한 생명의 신비가 있다고하면 저 빛나고 영원한 별들에게도 깃뿔과 슬픔과 사랑의 생각이 잇슬까. 이 마른 풀과 벌리지의 그들에게도 나와 가튼 괴로움이 잇겠시오. 앓가 나를 쓸고 가던 그 두 별도 영원히 풀리지못할 슬픔과 영원히 달하지못할 소망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길을 헤매는것이 아닐까요?

④ 이 조흔 어둠의 스크린에 정임의 아름다운모양이 나타난다하면, 다만 일초스동안만이라도 나타난다하면 그것은 이 우주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될것시오. 그러나 나는 어둠의 허공에서 정임의 환영을 보기에는 넘어도 신경이긋소. 넘어도 현실적이오. 로마에서 예수의 환영을 본 베드로, 아버지의 환영을 본 햄렛왕자, 잠시만 이런 사람의 신경을 빌려주었으면 얼마나 고맙겠소?

⑤ 「정임아, 정임아!」

하고 나는 힘을 더하야 불렀소. 그리고 가만히 눈을감고 마음속에 정임의 모양을 그려보려하였소. 그러나 아모리하여도 정임의 모양은 쪽바로 생각하지를 아니하오. 다른 모든 사람의 모양은생각히건마는 정임의 모양만은 아모리 애를 써도 쪽바로 생각하지를 아니하오.

내가 정임을 생각하는것이 죄가 되기때문에 하느님이 그것을 금하는것일까. 그러치만 내가 생각만하는것이야 무엇이 죄요? 내가

정임을 만리나 썰나서 한번 환영이나 보겠다는것이야 무엇이 죄요? 설사 죄라하기로 내니 내생각을 엿지하오? 이쎬요. 바로 이쎬에 내압 수습보나 될까 하는곳에 엿던 등스불 하나가 나시오! 나는 째작 놀랏소.

제43회의 첫 부분은 ‘작은 별’조차 기울고 나자 “세상에도 빛을 잃고 맘에도 빛을 잃은”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면서 시작된다(①). 신문연재본은 단행본에 비할 때, 정임의 환영을 그리는 내용 외에도 우주와 인간 존재에 관한 최석의 사색을 서술한 내용이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②,③). 제43회의 전반부에서 최석은 북만주 광야의 어둠 속에 홀로 남은 유일한 생명이 된 듯한 고독을 느끼고, 이러한 감정으로부터 인간이란 우주의 티끌이자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존재론적 소회를 털어놓는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론적 하찮음에도 불구하고, 최석은 자신의 내면에서 “내 속에 요 반짝반짝하는 것”, “저 한없는 공중과 한없는 세월과 그리고 슬픔과 기쁨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을 의식하는 요것”이 살아 있음에 주목한다. 이러한 내적인 동요에 대해 최석은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생명의 신비’라 지칭하면서, 우주의 미물인 인간에게 생명의 신비가 있다면 그 원리는 우주의 만물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리라는 결론을 내린다. 우주와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사색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마른 풀’, ‘별레’, ‘두 별’ 등 우주 만물에 이입시키고 이로써 자신을 보편자적 존재로 일반화시키는 이 같은 장면은 낯설지 않은 것이다. 박영채의 실종 이후 홀로 경성으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우주의 섭리에 대해 사색하던 『무정』의 이형식을 연상시키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최석의 사색은 이어지는 ‘두 별 무덤’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우주 및 생명론과 연결되는 것으로,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끌기에 충분해 보인다. 갑작스럽게 펼쳐진 인간과 우주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어색해지지 않도록 작가가 최석을 내세워 ‘형은 철학자이자 문사이지만 나는 칠판과 분필로만 일생을

보낸 사람'이라며 겸손 섞인 너스레를 떨도록 해놓은 문장도 흥미롭다.

이어 최석은 어둠을 스크린 삼아 정임의 환영을 떠올리려고 애를 쓰고, 그런 자신의 생각조차 죄를 짓는 일인지 묻는다(④,⑤). 이 대목은 단행본과 유사한 부분이지만 실제 그 내용 사이에는 작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단행본의 최석은 정임의 환영을 떠올리고 그 환영을 끌어안으려 노력하지만, 신문연재본의 최석은 끝내 정임의 모습을 환영으로라도 떠올리지 못한다. 이에 최석은 자신이 “신경이 굳고, 너무 현실적”이어서 정임의 환영조차 떠올릴 수 없는 것이라 자책하며, 누군가 자신에게 “로마에서 예수의 환영을 본 베드로, 아버지의 환영을 본 햄릿 왕자, 잠시만 이런 사람의 신경을 빌려주었으면 얼마나 고맙겠소?”라며 한탄한다. 이어 그는 ‘정임을 생각하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것을 금하는 것’이나 묻고 있다. 연재본의 최석은 정임의 환영조차 생각해내지 못하는 상태이고, 또한 정임의 생각을 하는 것조차 신에게 금지당한다고 여기고 있다. 정임의 환영을 그려낸 상태에서 ‘헛그림자’나마 붙잡고 살겠다는 것이 죄악이 되느냐고 묻는 단행본의 최석과, 정임의 모습을 끝내 생각해내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조차 죄악이 되느냐고 묻는 연재본의 최석은 내적 억압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단행본의 최석에 비해, 연재본의 최석은 보다 강하게 자신을 억압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정임의 환영을 좇는 최석이 “로마에서 예수의 환영을 본 베드로, 아버지의 환영을 본 햄릿 왕자”에 대해 언급하는 대목은, 누군가의 환영을 좇으며 죽어가는 인물을 그려나가는 춘원이 어떤 고전작품을 떠올리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기존 톨스토이의 『부활』이나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이외에, 또 다른 차원의 상호텍스트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대목이라고 할 것이다.

4. 해방 이전 단행본 판본의 현황 및 ‘43회 연재분’의 행방

1933년 <조선일보> 연재본과 해방 이후 발간된 삼중당 판본의 이와 같은 차이가 어떤 사정에 의해 생겨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방 이전 발간된 『유정』의 단행본들을 확인 및 검토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해방 이전 『유정』 단행본의 판본 및 소장처는 다음과 같다.⁸⁾

① 有情	靑島社	昭和十年(1935)	개인소장
② 有情	漢城圖書株式會社	昭和十二年(1937)	개인소장
③ 有情	모던일본사 (モダン日本社)	昭和十五年(1940)	아단문고 고려대학교도서관
④ 有情	발행자불명	1900-1945년 추정 일본어 판본	국립중앙도서관
⑤ 有情	발행자불명	발행일자불명	고려대학교도서관

이하의 내용은 개별 단행본 판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① 1935년 청도사(靑島社)에서 발행된 소설집이다. 청조사(靑島社)라고 알려진 경우가 있으나, 청도사(靑島社)가 정확한 명칭이다. 청도사는 경성에 근거를 둔 발행소로서, 판권란의 ‘저작겸발행자’(著作兼發行者)로 노자영(盧子泳)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⁹⁾ 인쇄소는 한성도

8) 해방 전 단행본의 소재 사형은 태학사판 춘원 전집을 기획한 춘원학회 측에서 제공 받았으며, 아래의 표는 춘원학회 측에서 받은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확인하고 수정 및 보완하여 정리한 것이다.

9) 근대서지연구자인 김종수는 판권면에 작가의 이름 대신에 ‘저작겸발행자’(著作兼發行者)로 출판자본가의 이름이 기재된 경우는 빈번하게 나타나며 이는 “당시의 출판관행상 이 경우는 출판자본가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김종수(2010), 『일제 식민지 근대 출판시장에서 이광수의 위상』, 『한국문화』 5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p. 115).

서주식회사이다. 이 소설집에는 「東京서 京城까지」, 「上海서」, 「海參威로서」, 「有情」 등의 소설 및 산문과 「봄의 설움」, 「꿈」, 「보낸 뒤」 등의 시가 함께 수록되었다.

② 1937년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발행된 소설집이다. 발행소와 인쇄소 모두 한성도서주식회사이다. 1935년 청도사에서 발행되었던 소설집과 동일한 판형으로 인쇄한 것으로, 발행소 및 발행 연도는 다르지만 내용은 ①과 동일하다.

③ 1940년 모던일본사(モダン日本社)에서 일본어로 번역하여 발행한 단행본이다. 발행자는 모던일본사, 발행인은 김원건아(金原健兒), 인쇄소는 대일본인쇄주식회사(大日本印刷株式會社) 가정공장(椋町工場)으로 표기되어 있다.¹⁰⁾ 『유정』 단일작품만 번역하여 수록한 책이며, 책의 후면에 <소개 및 해설(紹介と解説)>이 첨부되어 있다. 해설자는 이광수를 “조선을 열애하는 작가야말로, 조선이 낳은 위대한 작가”라고 소개하면서,¹¹⁾ 『유정』의 배경이 되는 시베리아 방랑이 작가의 자전적 경험에서 나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유정은 ‘연애를 다룬 순정물이자,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이야기, 사랑을 용납하지 않은 조선 사회에 대한 암묵적인 항의, 나아가 작가 자신의 영혼의 방랑자로서의 순례기’라 정리하였다.¹²⁾ <소개 및 해설> 말미에 번역자가 재일조선인 작가 김일선(金逸善)이라

10) 춘원은 국지관(菊池寛[기쿠치 칸])이 주도하여 1940년 모던일본사에서 제정한 조선예술상의 문학부문 1회 수상자이기도 하다. 당시 수상작은 김사량이 번역한 「無明」이었다(김윤식(1999),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숲, p. 282). 모던일본사는 『유정』 이외에도 1940년에 『愛』, 단편집 『嘉實』을 동시에 일역으로 발행한 바 있다(김종수(2010), p. 113).

11) 이광수(1940), 『유정』, 모던일본사, p. 320.
“朝鮮を熱愛する作者こそ、朝鮮が生んだ偉大なる作家なのだ。”

12) 이광수(1940), p. 322.
“その一篇は叶はぬ戀の純情物語であり道徳的な良心的な物語りであり、同時に、朝鮮の無理解な、愛を受け入れようとしない社會への暗黙の抗議でありまた同時に作者自身の魂の放浪者としての巡禮記でもある。”

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¹³⁾ 그가 <소개 및 해설>을 작성한 당사자일 가능성이 크지만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¹⁴⁾

④ 발행자 및 발행일자를 알 수 없는 파본이나, 확인 결과 모던일본사에서 발행한 ③과 동일한 단행본이다.

⑤ 발행자 및 발행일자를 알 수 없는 파본이나, 확인 결과 청도사에서 발행한 ①과 동일한 단행본이다.

이상의 단행본에 담긴 정보를 토대로 ‘43회 연재분’이 사라지게 된 맥락을 복기해 보기로 하자. 『유정』의 연재는 1933년 12월 31일에 마무리되었다. 청도사판 『유정』은 연재가 종료된 이후 일 년 정도가 경과한 1935년 3월에 나온 것으로, 여러 판본 중 첫 번째로 출간된 단행본이다. 이 단행본에도 43장의 내용은 삼중당 판본의 그것과 동일하게, “나는 그중 빛을 많이 받은, 그중 환해보이는 호수면을 찾기 두리번거리며, 그러나 따른(‘빠른’의 오기-인용자 주) 걸음으로 헤매었오. 그러나 내가 좀 더 맑은 호수면을 찾는 동안에 이 광야의 어두움은 더욱더욱 짙어지오. 나는 어떤 조그마한 호숫가에 펄쩍 앉았오.”¹⁵⁾로 시작되는 내용이 실려 있

13) 김일선(金逸善)은 재일조선인 작가로 1942년 2월 「단층」(斷層)이라는 소설을 문화학원(文化學院) 동인지 『야포도』(野葡萄)에 수록하고 그해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올랐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광형덕은, 오무라 마스오에 의해 1939년부터 1943년까지 김일선의 일본어작품을 총 16편 발굴되었으며, 그가 김사량과 비슷한 나이일 것이라 추정되지만 동인지 활동만 하고 무명으로 남았기 때문에 생몰 연도 및 행적에 대해서는 남은 바가 없다고 적고 있다(광형덕(2015), 「일제 말 이은직과 김달수의 일본어 창작」, 『일본학보』 103, 한국일본학회, pp. 146-147). 오무라 마스오는 김일선이 몸담았던 문화학원(文化學院) 동창회 회원명부를 통해 김일선이 평안도 정주 출신이며 이광수와 동향임을 확인했으나, 두 사람이 특별한 가까운 관계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오무라 마스오(2017), 『야포도』와 김일선, 『식민주의와 문학』, 소명출판, p. 40).

14) 모던일본사판 『유정』의 <소개 및 해설> 말미에는 김일선 외에 이광수의 단행본 번역에 참여한 인물들과 이들이 담당할 작품 목록이 열거되어 있다. 김일선은 「가실」, 「혈서」, 「유정」을 번역했다. 「난제오」, 「육장기」, 「몽」(夢)은 김산천(金山泉)이, 「무명」은 김사량이 번역을 맡았다. 김산천은 김일선과 마찬가지로 재일조선인 작가이리라 추정되나, 아직 관련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 이에 따라 신문 연재분이 사라진 것은 해방 이후 삼중당 판본에서 처음 생겨난 일이 아니라 이미 해방 이전 첫 단행본이 발간되던 시점부터 시작된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어느 작가들처럼 춘원도 단행본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부분을 개작(改作)했기 때문이라 보아야 하는가. 그러나 청도사본은 이상의 정황이 특별히 작가가 개작을 의도하여 소설의 내용을 바꾸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문제의 제43회 신문연재본은 이 단행본의 엉뚱한 곳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펄썩 주저앉았오. 앞선 큰 별을 알뜰히도 따라가던 적은 별조차 지평선을 넘어가고 마니 세상이 원통 캄캄해지는것 같았오.”로 시작되는 제43회 신문연재본은 본래 신문연재 5회분이 실렸어야 할 자리에 인쇄되어 있다.¹⁶⁾ 이는 개작의 결과라기보다는 인쇄 과정상의 오류임이 분명하다. 본래의 연재 5회분은, 제4회 및 제6회와 하나의 에피소드로 묶여 있기 때문에 분리해낼 수 없는 내용이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43회가 잘못 삽입되는 바람에 사라진 제5회는, 보통학교를 졸업한 정임과 순임을 여학교에 입학시키는 과정에서 정임이 좀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자, 이를 계기로 최석의 아내가 평소 쌓아두었던 정임에 대한 질투를 쏟아내며 부부간에 말다툼을 벌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가는 그간 쌓였던 갈등이 누적되는 모습을 5회까지 보여 준 뒤에, 6회의 첫 부분에서 최석의 아내가 “나이가 열여섯인데 어린 게야?”라며,¹⁷⁾ 정임을 향한 최석의 배려를 이성적 호감이라 의심하면서 노골적으로 경계하고 있음을 서술한다. 최석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내가 정임을 미워하는 속내를 비로소 정확하게 알게 되는 순간이고, 어느덧 정임이 성숙한 여성이 되었음을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제43회 연재분이 단

15) 이광수(1935), 『유정』, 청도사, p. 160.

16) 이광수(1935), p. 48.

17) 이광수(1935), p. 51.

행본의 제5장에 수록된 것은 명백한 인쇄상의 오류이며, 내용의 재배치 등 작가가 의도한 개작의 맥락으로는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청도사 단행본에는 신문연재 제5회분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유정』의 이본(異本)은 이 같은 인쇄 오류로 인해 정작 비어버린 제43장의 내용을 채워야 할 필요성 때문에 생겨났다. 흥안령(興安嶺) 일대 광야의 호숫가에서 정임을 생각하다 어둠 속에 떠오른 ‘두 별’을 보고 따라간 주인공 최석이(42회), ‘두 별 무덤’의 주인인 R부부와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는(44회) 중간 연결부가 반드시 필요했던 까닭이다. 그 결과 신문연재본에 비한다면 전반적으로 서술 분량이나 밀도의 측면에서 합량이 부족한 단행본 판본의 제43장이 탄생한다.

새로운 43장은 누구에 의해 집필된 것일까. 문체상으로 보았을 때 두 판본의 서술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출판사로부터 인쇄상 오류에 대한 사정을 전해들은 춘원이 해당 부분을 다시 집필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물론 춘원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대체본의 서술이 연재본에 비해 기계적이며 내용의 밀도가 떨어졌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내용상의 연결을 위해 정임을 향한 그리움에 대한 서술을 반복하고 있음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단행본 제5장에 신문연재본 제43회가 잘못 삽입되고, 비어버린 스토리를 새로운 제43장이 대체한 형태는 청도사 판본(1935.3)에서 처음 보이고, 이는 그로부터 2년 후에 간행된 한성도서 판본(1937.3)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두 판본은 서로 발행소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한성도서 주식회사에서 인쇄되었으므로 있을 법한 일이라 하겠다.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는 해방 이후 1950년에 다시 한 번 『유정』을 발간했다. 이 책은 앞서 해방 전에 나온 청도사나 한성도서 판본이 소설집의 형태로 묶인 것과는 달리, 『유정』 한 편만을 수록한 단행본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앞서 지목한 바 있는 인쇄상의 오류가 그대로 나타난다. 역시 신

문연재 제5회차의 연재분은 누락되고, 소설 초반과 후반에 각기 다른 형태의 43회가 두 차례 등장하는 것이다. 해방 전부터 써오던 동일한 판형을 사용하여 인쇄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도사 판본(1935)이 발행된 이후 한성도서 판본(1937, 1950)이 발간되기까지 해방 전후로 시중에 유통된 『유정』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완결된 이야기를 갖춘 적이 없었던 셈이다. 독자들로서는 5장에 이르면 문맥상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나와 이야기가 건너뛰는 것을, 또 43장에서는 앞서 읽었던 것과 유사한 내용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아야 했으니 말이다. 과연 해방 전 단행본들이 발간되는 상황에서 춘원은 이러한 사태를 몰랐을까. 첫 번째 단행본이야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춘원은 내용이 기형적으로 편집된 단행본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된다.

1940년에 발간된 모던일본사 판본은 이러한 인쇄상의 오류를 발견하고 해결하려 시도했다. 모던일본사 일역본은 제5장에 잘못 수록되어 이야기의 흐름을 해치던 제43회 신문연재분을 일단 삭제했다. 이에 따라 일역본에는 신문연재본 4회차와 6회차가 곧바로 연결되어 있다. 대외적으로는 정임에게 친절하게 굴지만 실제로는 정임을 경계하는 최석 부인의 이중적 면모를 서술한 제5회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기는 일역본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일역본은 그간 조선어 단행본에서 앞부분에 잘못 배치되어 있던 ‘43회 연재분’을 비로소 본래의 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러나 일역 단행본의 편집자는 그간 신문연재분을 대신하여 실려 있던 단행본용 43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듯하다. 이에 일역 단행본은 두 편의 43회를 모두 수록하는 방침을 선택했다. 모던일본사가 발행한 일역판 『유정』은 다음과 같이 신문연재 판본과 단행본 판본, 즉 두 편의 43회를 연결했다. 다음은 일역판의 해당 부분을 신문연재본과 한성도서 판본을 결합하여 한글 문장으로 옮기되, 현대어로 바꾸어본 것이다.

40. (...이전 생략)¹⁸⁾

나는 펄쩍 주저앉았소. 큰 별을 알뜰히도 따라가던 작은 별조차 지평선으로 넘어가고 마니 세상이 온통 캄캄해지는 것 같았소. 사막의 밤은 캄캄했지만 그 ‘두 별’일래 나는 환한 빛 속을 걷는 것 같았거든. 그러나 이제는 나를 끌어주는 별조차 없어졌소.

세상에도 빛을 잃고 맘에도 빛을 잃은 나. 이 나는 땅바닥에 펄쩍 주저앉은 것이오.

사막의 밤은 참으로 어둡소. 하늘빛도 땅의 어두움과 같이 어둡소. 하늘과 땅이 온통 한 빛으로 칠 같으니 연빛 같던 호수물조차도 이제는 거의 빛을 잃어서 가만히 한참이나 들여다보아야 희끄무레한 것이 어렴풋이 보일 뿐이오.

(...중략...)

“정입아, 정입아!”

하고 나는 힘을 더하여 불렀소.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 정입의 모양을 그려보려 하였소. 그러나 아무리 하여도 정입의 모양은 똑바로 생각하지를 아니하오. 다른 모든 사람의 모양은 생각하건만은 정입의 모양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똑바로 생각하지를 아니하오.

내가 정입을 생각하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것을 금하는 것일까. 그렇지만 내가 생각만 하는 것이야 무엇이 죄요? 내가 정입을 만 리나 떠나서 한번 환영이나 보겠다는 것이야 무엇이 죄요? 설사 죄라하기로 내니 내 생각을 어찌하오? 이때요. 바로 이

18) 모던일본사가 발행한 일역본은 잘못 배치된 제5장을 삭제한 뒤 본래 연재 6회분을 제5장의 내용으로 당겨서 실었고, 최석의 아내가 폐병을 앓는 내용을 다른 연재 10·11회분을 하나로 묶어 제9장으로 편성했다. 이에 한국어 단행본보다 두 장씩 앞당겨서 장의 회차가 표시된다. 일역본은 문제의 43회 신문연재본을 제40장(조선 어판본 제42장에 해당)의 뒷부분에 묶어서 하나의 장으로 편성했다. 단행본용 43회 이본은 제41장으로 분리하여 실었다. 본문에 인용한 부분은 李光洙(1940, 소화15년 6월), 『有情』, 모던日本社, pp. 171-176 중에서 각 장의 연결부를 발췌한 것이며, 이를 조선어 판본의 동일 부분으로 바꾸고 일역판에서 삭제된 부분을 인용자가 임의로 강조하여 표시한 것이다.

때에 내 앞 수 십보나 될까 하는 곳에 어떤 등불 하나가 나서오! 나는 깜짝 놀랐소. (일역본 삭제 부분)

41.

나는 그 중 빛을 많이 받은, 그 중 환해 보이는 호숫면을 찾아 두리번거리며, 그러나 빠른 걸음으로 헤매었소. 그러나 내가 좀 더 밝은 호숫면을 찾는 동안에 이 광야의 어둠은 더욱더욱 짙어지오.

나는 어떤 조그마한 호숫가에 펴씩 앉았소. 내 앞에는 짙은 남빛의 수면에 조그마한 거울만한 밝은 데가 있소. 마치 내 눈에서 무슨 빛이 나와서, 아마 정임을 그리워하는 빛이 나와서 그 수면에 반사하는 듯이. 나는 허겁지겁 그 밝은 수면을 들여다보았소. 혹시나 정임의 모양이 거기 나타나지나 아니할까 하고. 세상에는 그러한 기적도 있지 아니한가 하고.

(...이하 생략)

일역본은 먼저 신문연재 43회의 내용을 제자리로 옮겨 배치한 후 뒷부분을 다듬어서, 다음 장에 실린 단행본 판본의 43장과 이어지도록 만들었다. 이는 앞서 살폈듯, 신문연재본과 단행본 수록본, 두 이본의 주요 내용과 서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대신 두 내용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한 문단, 즉 정임에 대한 그리움을 죄와 연결시키는 부분(인용문에서 강조한 부분)은 신문연재본에서 삭제했다. 두 편의 43회를 한 데 모아 놓은 일역본의 선택은, 두 편의 43회가 소설 앞뒤에 제각기 존재하던 조선어 단행본의 오류를 최대한 해결하려 애쓴 결과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신문연재 5회분은 누락된 상태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편의 43회를 연결된 내용으로 편성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작업이 과연 누구에 의해서 주도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¹⁹⁾ 다시 말해 춘원이 직접 집필한

19) 두 편의 43회를 연결하는 작업은 『유정』의 번역을 담당했던 김일선에 의해 이루어

결과물인지, 혹은 춘원의 동의하에 대필했거나 혹은 춘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개작인지의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

해방 이후 1962년에 삼중당에서 발간한 춘원 전집은²⁰⁾ 그간 해방 전 단행본들이 공통적으로 누락시켰던 신문연재 제5회분을 복원하여 배치하였다. 다만 삼중당 판본은 두 편의 43회분, 즉 신문 연재분과 단행본 수록분 중에서 후자만을 선택하여 실었다. 해방 이전 조선어 단행본의 서술 내용을 그대로 살리되, 소설 전반부의 오류만을 정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는 1979년에 우신사(又新社)에서 간행한 춘원전집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결과만 놓고 본다면 삼중당 판본의 『유정』은, 신문연재 종료 후 해방 전후로 발행된 단행본들 중에서 특정 회차가 잘못 끼어들거나 누락되는 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럽게 연결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던 최초의 단행본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신문연재분은 『유정』의 단행본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후 삼중당 판본이 춘원 연구의 기초 자료로 자리를 잡으면서, ‘제43회 신문연재분’은 그 존재 여부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잊히게 되었다.

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 춘원이 개입했는지 혹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20) 삼중당은 1939년 『春園書簡文範』을 발행한 바 있다. 김종수는 『춘원서간문범』이 1941년에 5판까지 발행한 것을 확인하고, 이 책을 당시 8만부까지 발행했다는 삼중당 사장인 서재수의 회고를 소개한다. 김종수에 따르면 “1931년 서울 종로 관훈동에서 책방을 겸해 설립되었던 소규모 출판사였던 삼중당은 이것을 계기로 식민지 후반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이 인연으로 1962년 이광수 전집 20권을 발행”하였다고 한다(김종수(2010), p. 111.).

5. 결론

이 글에서는 1933년 <조선일보>에 연재된 춘원 이광수의 장편소설 『유정』의 서지적인 오류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선 그간 잘못 알려져 있던 연재 기간과 연재 횟수를 바로 잡았다. 이어 신문연재 소설이 단행본으로 발간되면서 달라진 단어나 문장들의 사례를 살폈다. 그중에는 작품 이해에 있어 기초적인 정보가 되는 시공간적 배경에 대한 사안도 있고, 인쇄상에서 생겨난 착오가 어떻게 전혀 다른 표현으로 전이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 논문은 <조선일보> 연재본과 1962년 해방 후에 발간된 삼중당 전집본을 비교하는 작업 중 발견한 두 판본의 내용상 차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다. 다시 말해, 신문연재 제43회분(1933년 11월 25일자 연재)의 내용이 단행본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대체된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일역본을 포함하여 해방 전에 발간된 『유정』의 여러 판본을 모두 검토한 결과, 최초의 단행본 인쇄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신문연재본과 다른 내용의 제43회가 새롭게 서술됨으로써 『유정』에 이본이 생겨나게 되었음을 해명하였다. 조선일보에 실린 ‘제43회 연재분’을 원본으로 본다면, 신문연재본, 조선어 단행본, 일본어 단행본, 삼중당 전집본의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결과적으로 춘원의 『유정』에는 신문연재 원본을 제외하고 총 세 가지 유형의 이본이 존재하는 셈이다. 세 종류의 이본 모두는 연재 43회분의 내용을 차후에 서술된 내용으로 대체하거나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수록했다는 점에서, 또한 그중 조선어 단행본이나 일본어 단행본은 연재 5회분이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텍스트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정 회차가 누락되거나 변형되지 않은, 춘원이 직접 집필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판본은 현재로서는 신문연재본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유정』은 춘원 자신이 애착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춘원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작품으로 간주되어 온 만큼, 본 논문의 서지적 검토 결과가 장차 관련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부록

① 『유정』 신문연재 제 43회분(1933.11.25.) 전문

나는 펼석 주저안것소. 큰 별을 알쓸히도 짜라가던 적은 별조차 지평선으로 넘어가고 마니 세상이 원통 캄캄해지는것 가탓소. 사막의 밤은 캄캄했지만 그 「두 별」 일래 나는 환한 빛속을 걷는것 가탓거든. 그러나 인제는 나를 끌어주는 별조차 업서졌소.

세상에도 빛출 일코 맘에도 빛출 일흔 나. 이 나는 쟁바닥에 펼석 주저안즌것이오.

사막의 밤은 참으로 어둡소. 하늘 빛도 쟁의 어두움과 가티 어둡소. 하늘과 땅이 원통 한 빛츠로 칠가트니 연스빛갓던 호수스물조차도 인제는 거의 빛출 일혀서 가만히 한참이나 들여다 보아야 히그무레한것이 어렵꽃이 보일뿐이오.

이러한 어두움 속에 생명이라고는 오직 나 하나뿐. 풀도 마르고 버레도 죽었소. 쟁속에는 가날핀 풀쑤리와 벌러지의 용들이 닥쳐올 치위를 생각하고 썰고 잇겟지오. 그러다가 얼어죽고 남은 쑤리와 용에서 풀과 벌러지가 나와서 오날의 사막과 빛과 소리의 잔치를 차리겟지오. 그러나 지금의 이 천지는 완전한 어두움과 죽음뿐이오. 그 속에 나라는 생명이 오직하나!

서쪽 하늘에 약간 남았던 흰한 기운도 다 슬어지고 인제는 은하만이 흰 무지개와 가치 하늘의 이 쪽 쑤해서 저쪽 쑤까지 쑤치엇슬뿐이오. 그리고는 수업는 별. 도모지 온기와 말이라고는 한 쑤도 업는 수업는 별들. 영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별들. 그래도 소용성, 대응성하고 서울장안에서도 낯나게 보던별들이 내가아직도 이 세상에 잇고나 하는생각을 줄뿐이오.

아아 나는 엇더케나 적은 존재인가. 나는 이 쌍에부튼 조고마한 한 벌 어지. 나의존재는 이 큰 우주에서 볼써에 도모지 감각되지안는 미물. 틱 슬한 알갱이보다도 적고 가엾고 뜻 업는 미물. 그러나 형! 이것이 무엇이 오? 내속에 요 반짝반짝하는것이 무엇이오? 저 한업는 공중과 한 업는 세월과 그리고 슬픔과 깃분과 사랑과 이런 모든것을 의식하는 요것이 무엇이오? 요것이 생명의 신비요? 형은 철학자요, 문사닛가 요것이 무엇이란것을아실것도 갓소. 마는 날가티 칠판과 분필로만 일생을 보낸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을 할 기회가 업섯소.

나라고하는 미물의 속에 이러한 생명의 신비가 잇다고하면 저 빛나고 영원한 별들에게도 깃분과 슬픔과 사랑의 생각이 잇을까. 이 마른 풀과 별러지의 그들에게도 나와 가튼 괴로움이 잇겠지요. 앓가 나를 끌고 가던 그 두 별도 영원히 풀리지못할 슬픔과 영원히 달하지못할 소망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길을 헤매는것이 아닐까요?

점점 찬 바람이 불어오고 찬 바람이 불어온다는이보다는 쌍과 대지가 얼어온다는것이 합당하겠소. 춥소. 나는 별씩 일어나서 어두움 속을 더 갖기 시작하였소. 마치 이 보다 더 어두운 곳, 이보다 더 추운 곳, 이보다도 더 쓸쓸한 곳을 찾는드시.

그리고 그 가장 어둡고, 춥고 쓸쓸한 곳을 차자서 이 슬픈 맘을 담은 별러지가튼 몸을 못어버리라는드시. 그러나 그보다도 내생명의마지막 순간이 오기전에, 이어두운허공속에서 마지막 한번 정임의 모양을 차즈라고요.

이 조흔 어둠의 스크린에 정임의 아름다운모양이 나타난다하면, 다만 일초스동안만이라도 나타난다하면 그것은 이 우주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될것ियो. 그러나 나는 어둠의 허공에서 정임의 환영을 보기에 는 넘어도 신경이긋소. 넘어도 현실적ियो. 로마에서 예수의 환영을 본 베드로, 아버지의 환영을 본 햄렛왕자, 잠시만 이런 사람의 신경을 빌려 주었으면 얼마나 고맙겠소?

나는 어둠의 허공속에서 정임의 환경을 차자서 헤매다가 마침내 찾지 못하고,

「정임아! 정임아! 정임아!」

하고 소리껏 불렀소. 피곤쌔문인가, 치위쌔문인가, 쏘는 괴로움쌔문인가 내 음성은 내 음성갓지아니하게 변하였슴을 깨달았소.

산도 업는 곳이라 내가 부른 소리에는 반향조차업소.

「정임아, 정임아!」

하고 나는 힘을 더하여 불렀소. 그리고 가만히 눈을감고 마음속에 정임의 모양을 그려보려하였소. 그러나 아모리하여도 정임의 모양은 쪽바로 생각하지를 아니하오. 다른 모든 사람의 모양은생각히건마는 정임의 모양만은 아모리 애를 써도 쪽바로 생각하지를 아니하오.

내가 정임을 생각하는것이 죄가 되기때문에 하느님이 그것을 금하는 것일까. 그러치만 내가 생각만하는것이야 무엇이 죄요? 내가 정임을 만나 써나서 한번 환영이나 보겠다는것이야 무엇이 죄요? 설사 죄라하기로 내니 내생각을 엿지하오? 이쎬요. 바로 이쎬에 내압 수습보나 될까 하는곳에 엿던 등스불 하나가 나시오! 나는 깜작놀랐소.

② 『유정』 삼중당 판본 대체 서술 부분 (pp. 74~76)

나는 그중 빛을 많이 받은, 그중 환해 보이는 호수면을 찾아 두리번거리며, 그러나 빠른 걸음으로 헤매었소. 그러나 내가 좀더 맑은 호수면을 찾는 동안에 이 광야의 어두움은 더욱더욱 짙어지오.

나는 어떤 조그마한 호숫가에 펴씩 앉았소. 내 앞에는 짙은 남빛의 수면에 조그마한 거울만한 밝은 테가 있소. 마치 내 눈에서 무슨 빛이 나와서, 아마 정임을 그리워하는 빛이 나와서 그 수면에 반사하는 듯이.

나는 허겁지겁 그 빨한 수면을 들여다보았소. 혹시나 정임의 모양이 거기 나타나지나 아니할까 하고 세상에선 그러한 기적도 있지 아니한가 하고

물에는 정임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소. 이따금 정임의 눈도 어른거리고 코도 번뜻거리고 입도 번뜻거리는 것 같소. 그러나 수면은 점점 어두워 가서 그 환영조차 더욱 희미해지오.

나는 호수면에 뻘하던 한 조각조각 감감해지는 것을 보고 숨이 막힐 듯함을 깨달으면서 고개를 들었소. 고개를 들려고 할 때에, 형이여, 이상한 일도 다 있소. 그 수면에 정임의 모양이, 얼굴만 아니라, 그 몸 온통이, 그 어깨, 가슴, 팔, 다리까지도 그 눈과 입까지도, 그 얼굴의 흰 것과 입술이 불그레한 것까지도, 마치 환한 대낮에 실물을 대한 모양으로 소상하게 나타났소.

「정임이!」

하고 나는 소리를 지르며 물로 뛰어들려 하였소. 그러나 형, 그 순간에 정임의 모양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소.

나는 이 어두움 속에 어디 정임이가 나를 따라온 것같이 생각했소. 혹시나 정임이가 죽어서 그 몸은 동경의 대학 병원에 벗어 내어던지고 혼이 빠져 나와서 물에 비치었던 것이 아닐까, 나는 가슴이 울렁거림을 진정치 못하면서 호숫가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두움 속에 정임을 만져보려는 듯이, 어두워서 눈에 보지는 못하더라도 자꾸 헤매노라면 몸에 부딪히기라도 할 것 같아서 함부로 헤매었소. 그리고는 눈앞에 번뜻거리는 정임의 환영을 팔을 벌려서 안고 소리를 내어서 불렀소.

「정임이, 정임이!」

하고 나는 수없이 정임을 부르면서 헤매었소.

그러나 형, 이것도 죄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지요. 그러길래 광야에 아주 어두움이 덮이고 새까만 하늘에 별이 총총하게 나고는 영 정임의 핫그림자조차 아니 보이지요. 나는 죄를 피해서 정임을 떠나서 멀리 온 것이니 정임의 핫그림자를 따라다니는 것도 옳지 않지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혼자서 정임을 생각만 하는 것이야 무슨 죄 될 것이 있을까요. 내가 정임을 만나나 떠나서 이렇게 핫그림자나 그리며

그리워하는 것이야 무슨 죄가 될까요. 설사 죄가 되어서니 난들 이것까지야 어찌하오. 내가 내 혼을 죽여 버리기 전에야 내 힘으로 어찌하오. 설사 죄가 되어서 내가 지옥의 꺼지지 않는 유희불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서니 그것을 어찌하오. 형, 이것 이것도 말아야 옳은가요. 정임의 헛그림자까지도 끊어 버려야 옳은가요.

이때요. 바로 이때요. 내 앞 수십보나 될까(캄캄한 밤이라 먼지 가까운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마는) 하는 곳에 난데 없는 등불 하나가 나시오. 나는 깜짝 놀라서 우뚝 섰소. 이 무인지경, 이 밤중에 갑자기 보이는 등불—그것은 마치 이 세상 같지 아니하였소.

참고문헌

【자 료】

- 이광수(1979), 『이광수전집』 4, 우신사.
_____(1962), 『이광수전집 : 유정, 애육의 피안, 운명 외』 8, 삼중당.
_____(1950), 『유정』, 한성도서주식회사.
_____(1940), 『유정』, 모던일본사(モダン日本社).
_____(1937), 『유정』, 한성도서주식회사.
_____(1935), 『유정』, 청도사.
_____, 「유정」, <조선일보>, 1933.9.27.~12.31. (조선일보 아카이브, <http://srchdb1.chosun.com/pdf>)

【논 저】

- 곽형덕(2015), 「일제 말 이은직과 김달수의 일본어 창작」, 『일본학보』 103, 한국일본학회.
김윤식(1999),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숲.
김종수(2010), 「일제 식민지 근대 출판시장에서 이광수의 위상」, 『한국문화』 5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진원(1992), 「항공발달사」, 『한국항공우주학회지』 20(3).
오무라 마스오(2017), 『식민주의와 문학』, 소명출판.

원고 접수일: 2018년 10월 3일

심사 완료일: 2018년 10월 29일

계재 확정일: 2018년 10월 30일

ABSTRACT

The Newspaper Serial Editions and Different Editions
of Lee Kwang-soo's Novel, *Yujeong*:
Restoration of Missing Serials and Revision of Bibliographic Errors

Joung, Ju-a*

This paper is a bibliographic study of *Yujeong*. The novel was serialized in the newspaper *Chosun Ilbo* in 1933. Firstly this paper revises basic bibliographic data such as the period and the number of times of the serial publication. In addition, the words and sentences that were changed in the process of publishing the newspaper series into a book are examined. Secondly this paper focuses upon explaining the differences in content between two versions of the *Chosun Ilbo* series and the book format published by the Samjoongdang company after liberation in 1962. It intends to explain why, in the process of being printed to a book form, the content of the 43rd serial of the Newspaper edition (November 25, 1933) was replaced with different content. For the restoration the missing serial, this paper reviews all the editions of *Yujeong* that were published under Japanese rule, including the edition published in Japanese. In the process of correcting the mistakes that occurred during the printing of the book, the 43rd serial story of the newspaper and the book resulted in different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ontents, revealing how different versions of *Yujeong* were then created. The contents of the newspaper series, the Korean book form, the Japanese book form, and the Samjoongdang book form all differ from one another. Therefore it is possible to identify one original version and three different versions of *Yujeong*.

